

3. 과테말라의 정치·경제 동향

가. 일반개황

일반	위치 : 중미 북부, 멕시코 아래 면적 : 109천 km ² (한반도의 1/2) 기후 : 열대(해안), 온대(고지대) 인구 : 14백만 명(2009) 수도 : Guatemala City(294만 명) 주민종족 : 메스티조(59%), 원주민(41%) 언어 : 스페인어, 마야어 종교 : 가톨릭(57%), 개신교(31%), 기타(12%)
정치	독립일 : 1821. 9. 15(스페인)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단일공화제) 국가원수 : Alvaro Colom Caballeros 대통령 의회 : 단원제(158석) 정치주요정당 : 국민혁명연합당(UNE), 대국민연합당(GANA), 과테말라 공화당(FRG) 국제기구가입 : UN, IMF, IBRD, IDB, IFC, IDA, WTO, OAS, ICAO, ILO, IAEA 등
경제	GDP : 393억 달러(2009) 1인당 GDP : 2,814달러(2009) 화폐단위 : Quetzal(Q) 회계연도 : 1. 1 ~ 12. 31 산업구조(2008) : 농수산업 13.1%, 서비스업 61.9%, 제조업 25.0% 주요수출품 : 커피, 설탕, 바나나, 석유 주요수입품 : 원부자재,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주요부존자원 : 원유, 니켈, 수력자원 경제적강점 : 농산자원 풍부, 미국과 FTA 체결 경제적약점 : 기술인력 및 자본 부족

나. 약사

- 1821년 9월 15일 : 독립 선언
- 1822년 : 멕시코와 합병
- 1824년 : 중미연방의 일원으로 멕시코로부터 독립
- 1839년 : 과테말라 공화국 성립
- 1945년 : 언론자유와 노동 3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헌법 제정
- 1952년 : 토지개혁 단행, 미국인 소유의 많은 토지와 자본 수용
- 1954년 : 미국의 군사개입으로 정권교체, 이후 군사정권 지속
- 1982년 : 리오스 몬뜨(Efraín Ríos Montt) 장군 쿠데타로 집권
- 1986년 : 세레소(Cincio Cerezo Arevalo) 민간정부 출범
- 1993년 5월 : 2대 민간 대통령인 세라노 국외 망명, 전 인권감찰관 데 레온(Ramiro de León Carpio)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
- 1996년 1월 : 민족진보당(PAN)의 아르수(Alvaro Arzu) 대통령 취임
- 1996년 12월 : 게릴라단체인 과테말라 혁명연합군(URNG)과 정부간 평화협정 체결
- 2000년 1월 : 과테말라 공화당(FRG)의 뽀르띠요(Alfonso Portillo) 대통령 취임

- 2004년 1월 : 국가연합당(GANA)의 베르쾨(Oscar Berger) 대통령 취임
- 2008년 1월 : 국민희망연합당(UNE)의 알바로 콜롬(Alvaro Colom) 대통령 취임

다. 경제동향

(1) 국내경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제성장률	5.4	6.3	3.3	0.4	2.9
재정수지 / GDP	-1.9	-1.4	-1.6	-3.0	-2.9
소비자물가상승률 ¹⁾	5.8	8.7	9.4	0.8	4.0

□ 2010년 경제성장세 회복 전망

- 과테말라 경제는 2006~07년 동안 5%를 상회하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 특히, 2007년에는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커피 및 설탕산업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 및 FDI 증가, 내수 경기 회복 등으로 과거 30여년간 가장 높은 6.3%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한 바 있음.
-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국제 곡물 및 에너지 자원 가격 폭등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출 확대, 대

1) 기말 기준

형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건설업 및 운송업 호조 등의 요인으로 4%대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9년 들어 미국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해외근로자 송금, FDI, 관광수입, 수출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모두 악화되어, 0.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침.

- 금년 들어서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경기 회복세 전환으로 인한 수출 증가와 관광산업의 호전 등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세로 재차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업률 증가와 송금 유입액 감소로 인해 민간소비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금년 경제성장률은 2.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 과테말라는 낮은 외채상환 부담,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정책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이 1%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 그러나 2006년 들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허리케인 Stan의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의 1.9%까지 확대되었고 이후 2008년까지 동 수준이 유지되어 왔음.
- 2009년에는 경기둔화 및 ‘1996년 평화협정 지원을 위한 특별세 (IETAAP)’ 종료 등으로 조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공무원 임금 증가, 경기부양 정책 실시 등으로 재정지출 또한 전년 대비 15%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재정수지 적자폭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인 -3%를 기록하였음.

· 2009년 공공부채/GDP 비중은 27.4%

- 2010년 정부는 GDP의 1~2% 수준의 조세 개혁안을 추진 중이나 2011년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여소야대 의회에서 개혁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와 경기부양책 지속으로 정부 지출 확대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물가는 안정세 회복

- 과테말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허리케인 Stan 피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2004~07년간 5~8%의 비교적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기준금리 인상 등 과테말라 정부의 적극적인 긴축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유가격의 폭등,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과거 10년간 가장 높은 9.4%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으로 대부분의 물가가 동결되었고, 1982년 이후 최저치인 0.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민간부문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어 주요 식료품과 교통통신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 국내통화가치 하락 등 여러 물가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4%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국제경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상 수 지	-1,585	-1,843	-1,843	-213	-1,368
경상수지/GDP	-5.0	-5.2	-4.7	-0.5	-3.1
상 품 수 지	-4,852	-5,487	-5,575	-3,297	-4,489
수 출	6,082	6,983	7,847	7,333	8,160
수 입	10,934	12,470	13,421	10,630	12,649
외 환 보 유 액	3,914	4,129	4,461	4,963	5,335
총 외 채 잔 액	5,496	6,260	6,500	6,525	7,361
총외채/GDP	18.2	18.4	16.6	16.6	16.9
D. S. R.	7.3	6.8	6.5	7.2	7.9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기조 지속

-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2007~08년에는 커피, 설탕 등 주요 수출품목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각각 55억와 56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도 각각 17.5억 달러(GDP 대비 -5.2%)와, 21억 달러(GDP 대비 -4.7%)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설탕 등 주요 수출품들의 국제가격 회복과 퀘찰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 감소율은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해 소비재 수입은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여,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각각 33억 달러와 2억 달러(GDP의 -0.5%)로 대폭 축소되었음.

- 2010년에는 내수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재차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지속적 증가

- 과테말라의 외환보유액은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 증가, FDI 유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말 현재 4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라. 정치·사회동향

□ 평화협정 체결 이후 민주주의 정치체제 정착

- 지난 1996년 게릴라 단체인 과테말라 혁명연합군(URNG)과 정부간에 평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36년간 지속되어온 내전시대가 마감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원조, URNG의 평화협정 이행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

□ 2008년 1월 알바로 콜롬(Alvaro Colom) 정부 출범

- 2007년 11월 치러진 과테말라 대통령 선거에서 온건 중도좌파인 알바로 콜롬 후보가 당선되어 2008년 1월 공식 취임하였음. 알바로 콜롬 대통령은 임기 4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 달성, 사형제 도입 등 강력한 치안안정화 정책 추진, 고용 증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 의회내 입지 축소로 개혁정책 추진에 어려움

— 2007년 9월 총선에서 현 집권당인 UNE(국민희망당)은 전체 158석 중 51석을 차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고 2009년 5월 콜롬 대통령 살인 사건 연루설 등으로 정책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여 개혁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치안불안 지속

—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으며, 검찰, 경찰 등 치안당국의 부정부패도 만연해 있고, 이 같은 높은 범죄율로 인해 경제 손실은 GDP의 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벨리즈와의 영토분쟁문제 해결 노력

— 과테말라와 벨리즈 양국간 영토분쟁이 지속되어 왔음. 2005년 11월, 양국은 미주협력기구(OAS)의 중재 하에 회담을 갖고, 영토분쟁 문제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6년 3월 양국은 과테말라시티에서의 회담에서 영토분쟁문제 관련 기술 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함.

□ 대부분의 주변국가와 우호선린관계 유지

— 베르체 정부(2004~08년)가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거래 및 돈 세탁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DR-CA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과의 우호선린관계가 강화됨.

- 중미 국가들과는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대만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2007년 11월 칠레, 2008년 2월 파나마와도 FTA를 체결하여 미국 중심의 경험축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경주중임.

마.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

- 2006년 7월, S&P는 과테말라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재정정책 추진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DR-CAFTA 발효로 인한 경제 전망 향상 등을 근거로 과테말라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Moody's는 2010년 6월 처음으로 과테말라의 장기외환표시 채권을 평가, Ba2 등급을 부여하였고, OECD의 경우 2006년 이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OECD : 5등급('08. 6) → 5등급('09. 7)
 - Moody's : Ba2('10. 6)
 - S&P : BB-('03. 5) → BB ('06. 7)
 - Fitch : BB+('06. 2)

□ 주요 ECA의 인수태도

- US EXIM : 한도범위내 전액인수 가능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채무재조정 이후 외채원리금 정상 상환

- 지난 1993년 파리클럽 연체 외채 3.8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 협상이 타결된 이후 정상적으로 외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
- 한편, 2009년 4월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IMF로부터 9.3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도입하였음.

□ 외채규모와 원리금 상환부담은 양호

- 2009년 총외채는 GDP의 16.6%인 65억 달러이며, D.S.R.은 7.2%로 외채규모와 원리금 상환 부담은 크지 않음. IMF의 대기성 차관을 도입하였고, 수입 약 6개월분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어 단시일 내 유동성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향후 전망

- 과테말라 경제는 주요 수출품인 커피의 작황 호전과 국제가격 상승, 그리고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알바로 콜롬 대통령은 세제개혁, 치안 강화, 교육 등 사회 인프라 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기의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여소야대 정국,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최근의 검찰내 비리 스캔들 등으로 입지가 좁아져 향후 레임덕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V.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 정치·경제 동향 및 투자환경

-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재정수지도 적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거시경제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공공부채와 외채규모가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거시경제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